

대학생 과제보고서에 나타난 인용정보 분석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Citations in Undergraduate Papers

박 성 재 (Sung-Jae Park)**

목 차

1. 서론	3.2 연구방법
2. 이론적 배경	4. 인용 행태 분석
2.1 인용과 표절	4.1 본문 내 인용과 참고문헌 사용 여부
2.2 인용과 정보자원	4.2 인용 자료의 유형별 분석
2.3 정보 활용 교육과 도서관 성과	4.3 출판연도
3. 연구문제와 방법	4.4 교수자의 참고문헌 관련 지침
3.1 연구문제	5.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적 글쓰기에서 대학생들의 자료 인용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자료에 대한 인식과 대학도서관 자료의 활용 정도를 측정하여 도서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학기말 보고서 공모전에 제출된 80편의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의 유형과 도서관 소장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생들의 논문 인용에 대한 지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웹 정보에 대한 의존도(44.9%)가 높았지만 다른 유형의 자료, 즉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대학도서관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신장을 위해 수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용과 참고문헌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자료를 개발하는데 힘을 쓸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undergraduate citation behavior and to measure the contribution which an academic library makes in the academic writing of students. Citations in 80 student papers submitted in the academic paper competition was analyzed for types of items cited and the number of items in the library collection, etc. The findings indicate: 1) the level of undergraduates' citation knowledge is very low, 2) undergraduates prefer web resources (44.9%) to such academic resources as books, journal articles, theses or dissertation, and 3) undergraduates find academic resources in their academic library. Up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academic library staff should intervene to enhance undergraduate academic writing skills and to develop educational material, including how to search for and cite reliable resources.

키워드: 대학생, 인용, 참고문헌, 연구윤리, 대학도서관, 리터러시 교육, 성과

Undergraduate, Citation, Reference, Research Ethics, Academic Library, Literacy Education, Outcome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조교수(spark@han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16년 2월 1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2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2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513-532,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1.513]

1. 서론

학술적 글쓰기는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학 교과과정의 기본이 된다. 글쓰기에 서 문장 표현력이나 글의 전개 등과 관련된 능력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이며 논지를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설득의 글쓰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인용, 즉 자신의 글을 뒷받침하거나 기존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전개가 필요하다. 대학 과정에서 배우게 될 “정확하고 올바른 인용은 정직하고 설득력 있는 글쓰기(최선경 2009, 322)”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학술적 글쓰기가 갖는 또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윤리성이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표절시비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보고서에 나타난 인용의 행태를 분석한 연구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인용의 오류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용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최선경 2009; 이인영 2011). 서울 및 경기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단지 17.6%의 대학도서관만이 이용자 교육 중에서 인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학 내의 학술적 글쓰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이혜영 2012).

대학생의 인용 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학생 면담이나 설문조사(이지연, 이상곤 2008; 이혜영, 남태우 2010)를 통해 이루어졌다. 학생들과의 대면을 통한 연구 방법은 참여자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에 의존한다는 점

에서 응답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일부 연구가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용의 행태를 분석(최선경 2009; 이인영 2011)했는데 인용의 오류를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형식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자료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수강하는 수업에서의 학술활동 결과물인 보고서에 사용된 인용 및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이 보고서 작성에 이용하는 정보원을 파악하고 이들 자료들 중에서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파악함으로써 도서관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학술영역에서 날로 중요해져가는 인용과 대학 내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인용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용과 표절

대학생들의 인용 행태 분석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주제 중의 하나는 표절에 관한 사항이다. 연구윤리의 한 측면으로 표절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도 인용과 표절에 대한 다수의 논문들이 수행되었다. 박동철(2007)은 표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절의 정의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과 표절 문제 해결을 위한 인용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절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표절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김

성수(2008)는 구체적인 표절방지 대책으로 미국 대학의 '학문적 정직성'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 대학들이 채택할 필요가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표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표절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한 연구들이 있다. 이지연과 이상근(2008)은 대학 사회에서 표절이 더욱 문제시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자유로운 정보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료의 인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디지털로 제작된 정보자원들은 네트워크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과제 수행에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디지털 자원의 높은 이용의 배경으로 인용과 참고문헌 작성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표절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과제 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이 디지털 자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절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조차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과 표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학에서 인용과 표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대학도서관에서도 인용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절과 연구윤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은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인식의 개선이 표절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인식의 개선은 표절방지를 위한 윤리적 글쓰기 기법의 학습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해영과 남태우(2010)는 인용지식을 문

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도 그 지식수준은 받지 않은 학생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절 방지를 위한 교육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상의 연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이나 설문을 통해 인용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한 반면 학생들의 글쓰기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다. 최선경(2009)은 대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인용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용한 문헌의 서지 기술 방식과 관련된 오류, 인용의 표시와 관련된 오류, 인용문의 이해와 관련된 오류, 인용문의 선택과 관련된 오류, 인용문의 길이 및 빈도와 관련된 오류"(최선경 2009, 299)를 발견했다. 유사한 방법으로 이인영(2011)은 글쓰기교실에서 상담을 진행한 38편의 글을 대상으로 인용의 오류를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인용 오류 이외에 대학생들의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능력의 부재를 오류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연구자는 표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는 논거의 정당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인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2 인용과 정보자원

보고서에 사용된 참고문헌이나 서지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인용의 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논문에 포함된 인용정보는 학술논문을 포함하

고 있는 학술지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인용된 자료의 도서관 소장여부를 분석함으로써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평가에 활용되기도 한다(송영희 외 2015). 전자는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이라고 불린다면 후자는 서지사항 분석(bibliography analysis)으로 언급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지사항 분석의 관점에서 인용의 행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가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를 자료의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글에서 인용된 자료의 유형은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대상이 학위논문인 경우(Smith 2003; Wilson 2012)에는 학술지 논문에 대한 인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대상이 일반적인 수업에서 제출된 보고서일 경우에도 학술지 논문이 다른 유형의 자료에 비해 높은 인용 빈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논문에서 학술지 논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Knight-Davis and Sung 2008; Mill 2008). 그러나 다른 연구(Hovde 2000; Carlson 2006; McClure and Clink 2009; Cooke and Rosenthal 2011)에서는 웹 정보원을 제외하고 단행본의 인용빈도가 학술지의 인용빈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료 유형은 과제의 성격이나 교수자의 가이드라인 등의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서지사항 분석 이외에 상관분석을 통해 인용의 행태와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사용된 변수로는 이수학점, 보고서 분량 등이 사용되었다. 이수학점과 이용한 자료유형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다양한 자료 유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료수에 있어서도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수학점과 웹 자료의 이용률에 대한 Yu와 Sullivan, Woodall(2006)의 연구에서는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웹 자원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인과관계의 분석은 아닐지라도 정보 자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3 정보 활용 교육과 도서관 성과

학생들의 정보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주제 중의 하나는 정보 활용 교육과 학생들의 학습 성과인 학점과의 관련성이다. 학습 성과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연구(Kohl and Wilson 1986; Dogden et al. 2003; Hurst and Leonard 2007)는 정보 활용 교육이 학생들의 인용의 형식이나 양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학점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Selegean와 Thomas, Richman(1983), Robinson와 Schegl(2004), Wang(2006)의 연구는 정보 활용 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학점을 비교함으로써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긍정적인 관련성을 발견했다. 특히 Wong과 Cmor(2011)는 8,70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정기간 정보 활용 교육을 받은 학생의 학점이 그렇지 않은 학생의 학점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학생들의 학점과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자료의 인용은 표절

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학습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도서관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특히, 이해영과 남태우(2010)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의 대학생들은 인용이나 참고문헌 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학도서관은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및 경기 지역 51개 대학도서관 중에서 인용과 참고문헌에 대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도서관이 9개 관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은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이혜영 2012).

인용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내실있게 준비했을 때 인용 교육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인용과 참고문헌의 형식에 치우친 교육보다는 적합한 자료를 선별하고 이를 본문에서 논거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이인영 2011). 교육이 진행된 후에는 교육의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 도서관에서 인용과 참고문헌 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자료 인용행태가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함으로써 도서관 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Cook과 Rosenthal(2011)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리터러시 교육 이후 학생들의 인용문헌의 수와 정보자료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의 수가 받지 않은 학생들의 보고서에 나타난 인용 자료 수보

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용된 자료 중에서 학술자료의 비중이 비학술자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연구문제와 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보고서에 나타난 인용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대학생들은 수업 과제물에 어떤 유형의 자료를 이용하는가?
- (2) 대학생들의 수업 과제물에서 온라인 자료의 활용도는 어떠한가?
- (3)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과 그 기여도는 어떠한가?

3.2 연구방법

3.2.1 연구문제와 내용

대학생들의 인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에서 요구하는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인용 행태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 인용분석을 실시했다. 인용분석은 웹 환경이 구축되기 전부터 학생들의 연구활동에 도서관이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Kohl and Wilson 1982; Gratch 1985; Ackerson

and Young 1994; Malone and Videon 1997). 인용분석은 이용자와의 대면이나 의견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용자 응답으로부터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yllia 1998). 또한 보고서의 참고문헌에 대한 분석은 도서관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Hovde 2000).

3.2.2 연구대상과 조사방법

보고서에 나타난 인용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 대학의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대학에서는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레포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모전에 제출된 보고서 중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80편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학기 중 학생들이 수강하는 수업에서 교수자에 의해서 과제로 제시되었고 학생들은 교수자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따라서 제출된 보고서는 여러 수업에서 여러 교수자들의 각기 다른 제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

공모전에 제출된 보고서는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 이외에 추가적으로 강의명, 개설학과, 전

공/교양 여부, 교수자의 보고서 작성 지침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학과 및 단과대학별 활용 정보자원이나 인용의 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장서의 이용률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 선행연구(Smith 2003)에서 사용된 인용된 자료의 도서관 소장여부를 조사하였다. 소장 여부의 조사는 인용된 자료가 도서관에 소장되었다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생은 도서관의 장서를 이용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소장 여부 조사는 2016년 1월 연구대상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종합목록(OPAC)을 검색하여 확인했다.

3.2.3 코딩범주와 요소

80편의 보고서는 <표 1>에 제시된 항목에 따라 코딩이 되었다. 코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명이 코딩 과정에 참여하였고 상호 오류를 점검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코딩 과정에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각 항목들에 해당하는 값들을 보고서에 찾아 기입하였다. 다만, 보고서에서 인용된 자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근이 모두 가능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온라인 선호도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만 분류했다.

<표 1> 분석에 활용된 코딩 체계

코딩 범주	코딩 요소
보고서 일반 정보	ID, 단과대학, 개설학과, 강의명, 전공/교양 여부
인용 및 참고문헌	본문 내 인용여부, 참고문헌 유무, 참고문헌수, 온라인 접근 가능 자료 수, 오프라인 접근 가능 자료수, 자료유형(단행본, 학술지, 잡지, 학위논문, 웹 정보, 사전(온라인, 오프라인, 위키), 기타), 도서관 소장자료 수, 자료유형별 소장자료 수(단행본, 학술지, 잡지, 학위논문, 기타), 출판년도, 인용과 참고문헌에 대한 교수자 지침 유무

4. 인용 행태 분석

연구대상 대학인 A 대학은 4개의 단과대학(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에 총 22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공모전 2차 심사대상 80편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과대학 2개 학과를 제외한 20개 학과의 수업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분석되었다. 학과별 통계에서 공모전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과는 입학 모집 단위가 가장 큰 경영학과였다. 예술대학에 속한 학과들의 경우, 분석된 논문의 수가 대부분 1개 혹은 2개로 나타나 학과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4개 단과대학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교양과 연계전공의 경우 수업을 개설한 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사회과학대학 수업에서 제출된 보고서가 3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과대학 수업에서 제출된 보고서가 5편으로 가장 적었다.

80편의 보고서에 포함된 참고문헌의 수는 총 508개로 편당 6.35개의 참고문헌이 사용되었으며 가장 많은 참고문헌을 포함하는 보고서는 행정학과 수업에서 제출된 보고서로 44개의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었다. 참고문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24편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단과대학별 참고문헌 수의 합은 사회과학대학이 260개로 가장 많았지만 보고서 편당 참고문헌의 수는 인문대학이 9.16개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를 전공과 교양으로 구분했을 경우에 전공 관련 수업에서 51편의 보고서가, 교양 수업에서 29편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편당 참고문헌의 수에 있어서는 교양수업에서 작

성된 보고서의 경우 7개로 5.98개의 전공수업 보고서보다 많았다(〈표 2〉, 〈표 3〉 참조).

4.1 본문 내 인용과 참고문헌 사용 여부

수업에서 학습의 결과물로 제출된 보고서는 학생들이 보고서 작성에 이용한 자료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이용된 자료는 본문 내에서 이용된 부분에 인용표시를 하고 보고서 말미에 참고문헌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란을 쓰지 않고 각주로 대신 한 경우에는 각주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용 자료의 인용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표가 제시하듯이, 본문 내 인용과 참고문헌을 사용한 예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본문 내 인용을 한 경우는 32편의 보고서로 전체의 40%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참고문헌 없이 본문 내 인용만 한 경우도 9편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의 포함 여부는 전체 보고서의 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보고서의 30%인 24편의 보고서는 참고문헌만 제공하고 있어서 본문 내에서 어느 부분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인용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보고서가 24개로 전체 보고서의 30%를 차지했다.

전공과 교양으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경우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문 내 인용의 경우 교양수업에서의 보고서가 전공수업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참고문헌을 포함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공수업이 조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소속별 보고서 및 참고문헌 통계

소속	보고서 수	참고문헌 수			
		합	평균	최소값	최대값
인문대학(소계)	25	229	9.16	0	22
교양	15	138	9.20	4	18
역사문화	4	71	17.75	11	22
영어영문	2	6	3.00	1	5
지식정보	3	10	3.33	0	10
한국어문	1	4	4.00	4	4
사회과학대학(소계)	38	260	6.84	0	44
경영	16	74	4.63	0	14
경제	3	16	5.33	4	7
교양	9	59	6.56	0	24
무역	4	32	8.00	4	9
부동산	2	12	6.00	0	12
지식서비스&컨설팅연계전공	1	4	4.00	4	4
행정	3	63	21.00	5	44
공과대학(소계)	6	9	1.50	0	5
기계시스템공학	3	6	2.00	0	5
멀티미디어 공학	1	3	3.00	3	3
산업경영공학	1	-	-	0	0
정보통신공학	1	-	-	0	0
예술대학(소계)	11	10	0.91	0	4
무용	1	4	4.00	4	4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	1	2	2.00	2	2
애니메이션	1	-	-	0	0
의생활학부 의류패션산업학과	1	4	4.00	4	4
의생활학부 패션디자인과	1	-	-	0	0
인테리어 디자인	2	-	-	0	0
제품디자인	1	-	-	0	0
회화과	1	-	-	0	0
교양	2	-	-	0	0
총계	80	508	6.35	0	44

〈표 3〉 참고문헌 수 통계 (전공/교양)

전공/교양 여부	보고서수	참고문헌수			
		합	평균	최소	최대
전공	51	305	5.98	0	44
교양	29	203	7.00	0	24
총계	80	508	6.35	0	44

〈표 4〉 본문 내 인용과 참고문헌을 사용한 보고서 통계

구분		보고서수	본문 내 인용		참고문헌		본문 내 인용+ 참고문헌		없음	
단과 대학	인문대학	19	9	47%	13	68%	6	32%	3	16%
	사회과학대학	44	22	50%	28	64%	16	36%	10	23%
	공과대학	6	1	17%	3	50%	1	17%	3	50%
	예술대학	11	0	0%	3	27%	0	0%	8	73%
전공/ 교양	전공	51	17	33%	31	61%	13	25%	16	31%
	교양	29	15	52%	16	55%	10	34%	8	28%
총계		80	32	40%	47	59%	23	29%	24	30%

본문 내 인용이나 참고문헌을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70%로 나타났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인용이나 참고문헌의 형식에 맞게 사용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특히, 인용이나 참고문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지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학생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오류로 나타났다. 학계에서 사용하는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 매뉴얼이 다양하지만 각각의 매뉴얼에서 자료를 표현하는 정보로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출판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독자들을 저자가 참고한 자료로 이끄는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기술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는 최선경(2008)과 이인영(2011)의 논문에서도 발견된 오류로 참고문헌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용과 참고문헌의 기초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인용 자료의 유형별 분석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보고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는 웹

정보로 이용 자료의 4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단행본가 26.4%, 학술지가 1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분석한 경우에도 공과대학을 제외하고 이러한 순위에 변화는 없었다. 공과대학의 경우는 단행본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분석대상 보고서 수가 6편으로 그 수가 적어 공과대학의 특성이라고 분석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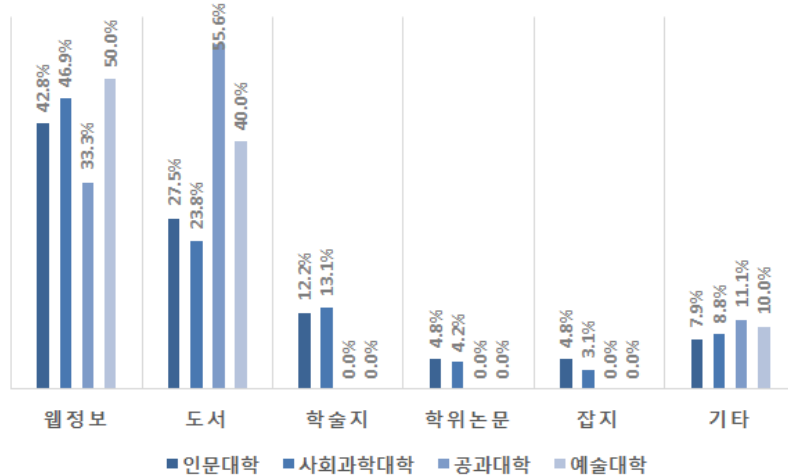
공과대학과 예술대학 수업과 관련된 보고서에서 특징적인 점 중의 하나는 웹 정보나 단행본본의 활용비중이 높은 반면에 학술지, 학위논문 등의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공과대학의 경우 다른 학문분야보다 자료의 최신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행본보다는 학술지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과대학 수업에서 제출된 보고서가 5편으로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표본의 수를 늘려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그림 1〉 참조).

인용된 정보원 중에서 사전은 특정 단어의 의미를 기술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글쓰기에 자주 사용된다. 전체 80편의 보고서 중에서 사전

〈표 5〉 인용된 자료의 유형

단위: %

대학	웹정보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잡지	기타
인문대학	42.8	27.5	12.2	4.8	4.8	7.9
사회과학대학	46.9	23.8	13.1	4.2	3.1	8.8
공과대학	33.3	55.6	0.0	0.0	0.0	11.1
예술대학	50.0	40.0	0.0	0.0	0.0	10.0
총계	44.9	26.4	12.2	4.3	3.7	8.5



〈그림 1〉 자료유형별 이용률(단과대학별)

을 사용한 경우는 51편으로 63.5%의 보고서가 사전을 인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24편을 제외한 56편 중에서는 91.1%의 보고서가 사전을 인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단과대학별로 분석했을 경우, 사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인문대학으로 자료당 평균 1.08개의 사전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공과대학은 자료당 0.17개의 낮은 사전 이용률을 보였다.

정보환경의 변화는 사전의 이용행태를 변화시켰는데 인쇄형 사전의 이용률은 매우 낮았고

온라인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사전을 이용한 보고서의 88.2%는 온라인 사전을 이용한 반면에 단지 11.8%의 보고서가 인쇄형 사전을 이용했다는 결과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인쇄형 기반의 온라인 사전 이외에도 협력 기반의 위키 사전이 학술적 글쓰기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심원식, 변제연, 김민정 2013).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전을 이용한 보고서의 41.2%가 위키 사전을 인용했다. 이는 인쇄형 사전에 기반한 온라인 사전은 내용의 업데이트 주기가 위키 사전에 비해 느리다는 점에서 최신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록 내용의 제약으로 인

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는 담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위키 사전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업데이트 주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내용적인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Head and Eisenberg 2010).

위키의 대표적인 예인 위키피디아(Wikipedia.org)에 대한 신뢰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위키피디아는 학술적 논문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Giles 2005; Magnus 2008)가 있는 반면에,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Rector 2008; Brown 2011)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의학을 제외한 학문 분야에서는 위키피디아는 대체로 신뢰성이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Mesgari et al. 2015) (<표 6> 참조).

학생들의 보고서 작성에 대학도서관이 어느 정도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용된 자료 중에서 도서관 소장여부나 자료에 대한 접근 제공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인용된 자료 508개 중에서 171개인 33.7%의 자료를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표 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웹 정보가 44.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낮은 활용도로 나타났다. 자료유형별로

분석을 했을 경우, 인용된 단행본의 75.4%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었다. 학술지의 경우에도 74.2%를, 학위논문은 81.8%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정보원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도서관 소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는 수업과 관련된 자료이고 대학도서관의 목적 중의 하나가 대학 구성원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미소장 자료에 대한 수서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보고서 내의 인용 자료 분석결과는 도서관 장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표 7> 참조).

이용된 자료의 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편당 자료의 수를 측정한 결과 편당 2.14개의 도서관 소장 자료가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유형별로 단행본의 경우가 편당 1.2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학술지가 편당 0.58개, 학위논문은 편당 0.23개가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 참조).

선행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보고서 작성에 이용된 도서관 자료는 도서관 장서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Smith 2003; Leiding 2005). 장서 구축의 목적 중의 하나는 이용을 통한 정보요구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정보요구인

<표 6> 사전의 이용률

대학	대상논문수	사전		온라인 사전*		인쇄형 사전		위키 사전	
		자료수	평균	자료수	%	자료수	%	자료수	%
인문대학	25	27	1.08	13	48.1	2	7.4	12	44.4
사회과학대학	38	20	0.53	9	45.0	4	20.0	7	35.0
공과대학	6	1	0.17	1	100	0	-	0	-
예술대학	11	3	0.27	1	33.3	0	-	2	66.7
총계	80	51	0.64	24	47.1	6	11.8	21	41.2

* 인쇄형 사전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전

〈표 7〉 도서관 소장 장서 활용도

대학	자료유형별 합계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인용	도서관소장(%)*		인용	도서관소장(%)		인용	도서관소장(%)		인용	도서관소장(%)	
인문대학	229	82	(35.8)	63	47	(74.6)	28	24	(85.7)	11	9	(81.8)
사회과학대학	260	80	(30.8)	62	46	(74.2)	34	22	(64.7)	11	9	(81.8)
공과대학	9	4	(44.4)	5	4	(80.0)	0	0	(-)	0	0	(-)
예술대학	10	5	(50.0)	4	4	(100)	0	0	(-)	0	0	(-)
총계	508	171	(33.7)	134	101	(75.4)	62	46	(74.2)	22	18	(81.8)

* 정보자료 유형 중 잡지를 포함한 기타범주에 해당 자료수를 포함한 수치임.

〈표 8〉 도서관 소장 자료의 보고서 편당 이용 현황

대학	대상 논문수	도서관소장		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기타	
		합	평균	합	평균	합	평균	합	평균	합	평균
인문대학	25	82	3.28	47	1.88	24	0.96	9	0.36	2	0.08
사회과학대학	38	80	2.11	46	1.21	22	0.58	9	0.24	3	0.08
공과대학	6	4	0.67	4	0.67	0	0.00	0	0.00	0	0.00
예술대학	11	5	5.00	4	4.00	0	0.00	0	0.00	1	1.00
총계	80	171	2.14	101	1.26	46	0.58	18	0.23	6	0.08

과제 해결에 사용된 도서관 장서는 그 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평가는 기존의 도서관 중심의 평가, 즉 산출평가의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미국 대학 및 연구소도서관 연합회(ACRL)의 2015 Top Trends에서 대학도서관의 핵심 이슈 중의 하나로 대학도서관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성과평가(Outcome Evaluation)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성과로 모기관인 대학의 목표인 학습의 관점에서 재학생 유지율(retention rate), 등록률 등을 제안했다(Oakleaf 2012; Haddow 2013).

장서와 관련하여 장서의 활용도는 중요한 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학생의 학습활동에 얼마나 많은 장서가 활용되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수치화한다면 장서의 이용률을 측정할 수 있고 이는 장서가 가진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정보 활용 교육을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의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서관 사서들의 역할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 국가 차원의 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Council of Chief Libraries n.d.). 그 전략 중에서도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사서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와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 즉 성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다. 도서관 장서의 인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업의 결과물로 제출하는 보고서는 이용된 도서관 장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수집이 요구된다. 이들 데이터가 수집되고 학사정보시스템, 도서관 시스템이 통합된다면 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수치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온라인/오프라인 자료 이용률

소속	보고서 수	참고문헌 수		온라인 자료		오프라인 자료		
		합	평균	합	평균	합	평균	
단과대학	인문대학	25	229	9.16	163	6.52	66	2.64
	사회과학대학	38	260	6.84	162	4.26	98	2.58
	공과대학	6	9	1.50	4	0.67	5	0.83
	예술대학	11	10	10.00	2	2.00	8	8.00
전공/교양	전공	51	305	5.98	195	3.82	110	2.16
	교양	29	203	7.00	136	4.69	67	2.31
총계		80	508	6.35	331	4.14	177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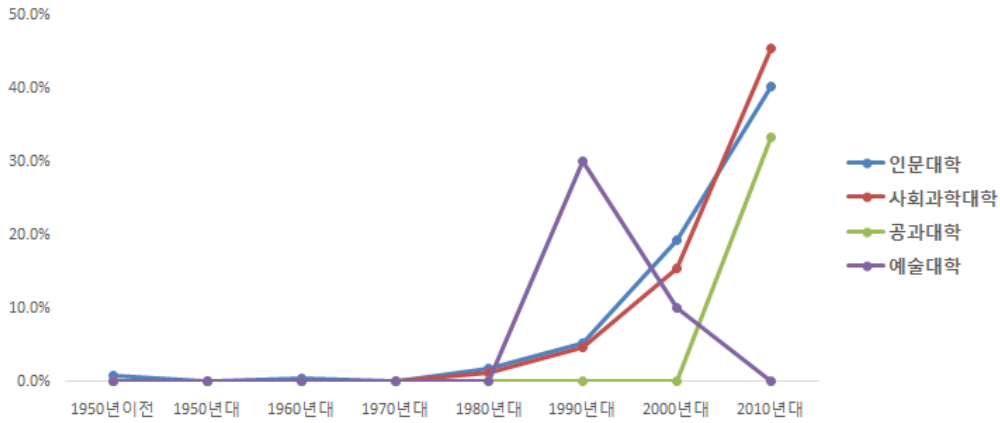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정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학생들의 온라인 자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Grimes and Boening 2001; Davis 2003; Mill 2008).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는 해외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국내 대학생들의 온라인 자료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온라인 자료의 이용이 오프라인 자료보다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자료는 전체 인용된 참고문헌 수의 65.2%를 차지했다. 보고서 편당 4.14개의 온라인 자료가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분석했을 경우에 인문대학의 경우 온라인 자료에 대한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9〉 참조).

4.3 출판연도

인용된 문헌에 대한 출판연도 분석결과, 최근 5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의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분석했을 경우, 예술대학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서 2010년대 자료의 비율이 다른 년대의 자료비율보다 높았다. 예술 관련 수업의 경우 1990년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인용을 한 보고서가 3편으로 매우 적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단과대학별 분석에서 발견된 특징 중의 하나는 가장 오래된 자료를 사용한 단과대학은 인문대학으로 1950년대 이전 자료를 활용했다. 또한 1960년대 자료를 사용한 경우도 인문대학 수업에서 제출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인문학의 자료 활용의 시간적 범위가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Mill(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인문학 분야에서 인용된 자료의 평균 연령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분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80편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508개의 자료 중에서 173개의 자료는 출판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원 자료에서 출판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들이 작성한 불완전한 서지정보에 기인한다. 앞서 제안했던 것과 같이,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때 인용의 기본 틀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그림 2〉 참조).



〈그림 2〉 인용 자료의 출판년도 통계

4.4 교수자의 참고문헌 관련 지침

분석된 80편의 보고서 중에서 교수자로부터 인용과 관련된 지침을 받은 경우는 7편으로 전체의 8.7%로 매우 적었다. 지침을 받은 집단의 7편 보고서와 지침을 받지 않은 집단의 73편을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만 지침을 받은 집단의 논문의 인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을 요구한 수업에서 제출된 보고서의 경우 편당 14.71개의 자료를 이용한 반면, 참고문헌 관련 요구를 받지 않은 수업에서 제출된 보고서의 경우 편당 5.55개의 자료를 이용했다. 이

러한 결과는 교수의 지침이 자료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한 자료의 도서관 소장 비율 분석결과, 즉 도서관 자료 이용률에서도 지침을 받은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 이용률이 그렇지 않은 학생의 이용률보다 높았다. 온라인 자료 이용률에 있어서는 반대로 참고문헌에 대한 지침을 요구받은 학생들의 이용률이 지침이 없는 수업의 학생들의 이용률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교수자의 지침과 학생들의 인용행태의 관련성을 연구한 Robinson과 Schlegl(2004)은 학생들을 세 집단, 즉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은

〈표 10〉 교수자의 인용 지침 제공여부에 따른 인용 통계

	참고문헌 관련 지침 제공								참고문헌 관련 지침 없음							
	논문수	참고문헌수		도서관소장자료		온라인이용		논문수	참고문헌수		도서관소장자료		온라인이용			
		합	평균	수	비율	합	비율		합	평균	수	비율	합	비율		
인문대학	3	30	10.00	8	(27%)	19	(63%)	22	199	9.05	74	(37%)	144	(72%)		
사회과학대학	4	73	18.25	37	(51%)	41	(56%)	34	187	5.50	43	(23%)	121	(65%)		
공과대학	0	0	-	0	(-)	0	(-)	6	9	1.50	4	(44%)	4	(44%)		
예술대학	0	0	-	0	(-)	0	(-)	11	10	0.91	5	(50%)	2	(20%)		
총계	7	103	14.71	45	(44%)	60	(58%)	73	405	5.55	126	(31%)	271	(67%)		

통제집단과 자료 이용교육을 실시한 집단, 그리고 이용교육과 교육적인 제재를 병행한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제재를 병행한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학술자료 이용률을 보였으며 비학술 전자저널에 있어서는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Davis(2003) 역시 인용과 관련된 지침(포함될 참고문헌의 수, 부적절하거나 비학술적인 참고문헌 사용에 대한 제재 등)이 주어졌을 때 학술자료의 이용률이 높았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학술자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목 설계시 교수자들과 도서관 사서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서관에서는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방법, 즉 인용과 참고문헌 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수자는 이에 대한 수강과 보고서 제출시 관련 지침을 학생들에게 준다면 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용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도서관 장서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대학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적 글쓰기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설득의 논증을 만드는 과정이다. 글쓰기 과정에서 근거는 정당성 확보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자료의 올바른 선택과 활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들이 학습의 결과물로 제시한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와 그 활용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자료 인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생

들의 자료 인용 및 참고문헌의 작성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본문 내의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표절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학술적 보고서 작성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이용된 자료의 유형에서 웹 정보원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인용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교수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수자가 참고문헌 작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 경우 학생들의 인용의 빈도가 지침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가 낮은 웹 정보원에 대한 인용보다는 단행본이나 학술지 등의 신뢰도 높은 정보자원을 사용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담당 교수자가 참고문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업 내용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자가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도서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협력을 통해 학술적 글쓰기에 이용된 자료에 대한 인용과 참고문헌의 형식적 기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자료를 판별하는 법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의 사서는 이러한 교육을 진행한 후에 참여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변화는 도서관 교육을 통

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덧붙여, 학생들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 중에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도서관 소장 자료의 활용성을 평가하고 소장하지 않은 자료는 수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활동에서 대학도서관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와의 적극적인 교류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분석하여 인용의 행태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석결과의 일반화와 관련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는 보고서가 공모전에 제출된 보고서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분석의 범주로 사용된 전공이나 단과대학 등의 요소에서 대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참고문헌의 수나 도서관 소장여부를 단과대학 및 전공별로 분석할 때 학년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고문헌의 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년을 고려한 분석이 요구된다. 소속정보를 이용한 분석에 추가적으로 교수자에 의해 제시된 과제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인용의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는 서울소재의 한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대학의 특수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대상 대학은 교육중심의 대학이라는 점에서 연구 중심의 대학에서는 인용과 참고문헌에 대한 교육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용된 자료와 관련하여, 공모전에 출품한 보고서들은 2014년 2학기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2014년 도서관 OPAC을 이용하였지만 본 연구는 2016년 1월 OPAC을 검색하였다는 점에서 소장 및 접근 가능한 자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들은 후속 연구에서 체계적인 샘플링 과정과 샘플링 수의 확보, 분석된 보고서의 저자인 대학생들과의 인터뷰나 설문을 통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광동철. 2007. 학술논문에서 표절의 유형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103-126.
- [2] 김성수. 2008. 미국 대학의 '학문적 정직성' 정책에 대한 연구 - 대학 글쓰기에서 '표절' 문제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6: 193-226.
- [3] 송영희 외. 2013.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4] 심원식, 변제연, 김민정. 2013. 학술논문에서의 위키피디아 인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47-264.

- [5] 이인영. 2011. 대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 나타난 자료 이용 실태 분석. 『비평문학』, 41: 279-320.
- [6] 이지연, 이상근. 2008. 과제표절과 관련한 대학생의 디지털 정보원 활용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열린교육연구』, 16(3): 103-121.
- [7] 이혜영, 남태우. 2010. 대학생들의 인용 및 표절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175-198.
- [8] 이혜영. 2011. 대학도서관에서의 과제 작성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369-395.
- [9] 이혜영. 2012. 대학도서관의 인용 및 참고문헌작성 교육 현황.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35-56.
- [10] 최선경. 2009. 대학생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 인용방식의 오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1: 299-324.
- [11] Ackerson, L. G. and Young, V. E. 1994. "Evaluating the Impact of Library Instruction Methods on the Quality of Student Research." *Research Strategies*, 12(3): 132-144.
- [12] Anthony, D., Smith, S. W. and Williamson, T. 2009. "Reputation and Reliability in Collective Goods the Case of the Online Encyclopedia Wikipedia." *Rationality and Society*, 21(3): 283-306.
- [13] Barnard, E. and Weaver, N. E. 2011. *Student Use of Sources: A Collaborative Investigation of Resource Use in Tertiary-level Psychology Assignments*. Lower Hutt: The Open Polytechnic. [online] [cited 2016. 1. 31.]
<<https://www.openpolytechnic.ac.nz/assets/Marketing/Research/Current-working-papers/WorkingPaper11-2.pdf>>
- [14] Brown, A. R. 2011. "Wikipedia as a Data Source for Political Scientists: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Coverage."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4(2): 339-343.
- [15] Carlin, J. A. and Damschroder, C. B. 2009. "Beautiful and Useful: The Book as a Learning Object." *College & Research Library News*, 70(3): 168-183.
- [16] Carlson, J. 2006. "An Examin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 Citation Behavior."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2(1): 14-22.
- [17] Cooke, R. and Rosenthal, D. 2011. "Students Use More Books after Library Instruction: An Analysis of Undergraduate Paper Citatio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2(4): 332-343.
- [18] Davis, P. M. 2003. "Effect of the Web on Undergraduate Citation Behavior: Guiding Student Scholarship in a Networked Age."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3(1): 41-51.
- [19] Dodgen, L. et al. 2003. "Not so SILI: Sociology Information Literacy Infusion as the Focus of Faculty and Librarian Collaboration." *Community & Junior College Libraries*, 11(4):

- 27-33.
- [20] Giles, J. 2005. "Internet Encyclopaedias Go Head to Head." *Nature*, 438(7070): 900-901.
- [21] Gratch, B. 1985. "Toward a Methodology for Evaluating Research Paper Bibliographies." *Research Strategies*, 3(4): 170-77.
- [22] Grimes D. J. and Boening C. H. 2001. "Worries with the Web: A Look at Student Use of Web Resourc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2(1): 11-22.
- [23] Haddow, G. 2013. "Academic Library Use and Student Retention: A Quantitative Analysi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5(2): 127-136.
- [24] Head, A. J. and Eisenberg, M. B. 2010. "How Today's College Students Use Wikipedia for Course-Related Research." *First Monday*, 15(3). [online] [cited 2016. 1. 31.]
<<http://firstmonday.org/ojs/index.php/fm/article/view/2830/2476>>
- [25] Hovde, K. 2000. "Check the Citation: Library Instruction and Student Paper Bibliographies." *Research Strategies*, 17(1): 3-9.
- [26] Hurst, S. and Leonard, J. 2007. "Garbage in, Garbage out: The Effect of Library Instruction on the Quality of Students' Term Papers." *The Electronic Journal of Academic and Special Librarianship*, 8(1). [online] [cited 2016. 1. 31.]
<http://southernlibrarianship.icaap.org/content/v08n01/hurst_s01.htm>
- [27] Knight-Davis, S. and Sung, J. S. 2008. "Analysis of Citations in Undergraduate Paper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9(5): 447-458.
- [28] Kohl, D. F. and Wilson, L. A. 1986. "Effectiveness of Course-Integrated Bibliographic Instruction in Improving Coursework." *RQ*, 1986: 206-211.
- [29] Leiding, R. 2005. "Using Citations Checking of Undergraduate Honors Thesis Bibliographies to Evaluate Library Collection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6(5): 417-429.
- [30] Magnus, P. D. 2008. "Early Response to False Claims in Wikipedia." *First Monday*, 13(9). [online] [cited 2016. 1. 31.] <<http://firstmonday.org/article/view/2115/2027>>
- [31] Malone, D. and Videon, C. 1997. "Assessing Undergraduate Use of Electronic Resources: A Quantitative Analysis of Works Cited." *Research Strategies*, 15(3): 151-158.
- [32] Mesgari, M. et al. 2015. "The Sum of All Human Knowledge: A Systematic Review of Scholarly Research on the Content of Wikipedia."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6(2): 219-245.
- [33] Mill, D. H. 2008. "Undergraduate Information Resource Choic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9(4): 342-355.
- [34] Oakleaf, M. 2012. *Value of Academic Libraries: A Comprehensive Research Review and*

- Report*. Chicago, I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nline] [cited 2016. 1. 31.]
<http://www.ala.org/acrl/sites/ala.org/acrl/files/content/issues/value/val_report.pdf>
- [35] Rector, L. 2008. "Comparison of Wikipedia and Other Encyclopedias for Accuracy, Breadth, and Depth in Historical Articles." *Reference services review*, 36(1): 7-22.
- [36] Robinson, A. M. and Schlegl, K. 2004. "Student Bibliographies Improve When Professors Provide Enforceable Guidelines for Citations."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4(2): 275-290. [online] [cited 2016. 1. 31.]
<https://muse.jhu.edu/login?auth=0&type=summary&url=/journals/portal_libraries_and_the_academy/v004/4,2robinson.pdf>
- [37] Selegean, J. C., Thomas, M. L. and Richman, M. L. 1983. "Long-Range Effectiveness of Library Use Instruction."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4(6): 476-480.
- [38] Smith, E. T. 2003. "Assessing Collection Usefulness: An Investigation of Library Ownership of the Resources Graduate Students Us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4(5): 344-355.
- [39] Sylvia, M. J. 1998. "Citation Analysis as an Unobtrusive Method for Journal Collection Evaluation Using Psychology Student Research Bibliographies." *Collection Building*, 17(1): 20-28.
- [40] Wilson, E. K. 2012. "Citation Analysis of Undergraduate Honors Thesis." *The Southeastern Librarian*, 60(1): 39-50.
- [41] Wang, R. 2006. "The Lasting Impact of a Library Credit Course."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6(1): 79-92.
- [42] Wong, S. H. R. and Cmor, D. 2011. "Measuring Association between Library Instruction and Graduation GPA."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2(5): 464-473. [online] [cited 2016. 1. 31.] <<http://crl.acrl.org/content/72/5/464.full.pdf+html>>
- [43] Yu, F., Sullivan, J. and Woodall, L. 2006. "What Can Students' Bibliographies Tell Us?: Evidence Based Information Skills Teaching for Engineering Students." *Evidence Based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1(2): 12-2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ack, Dong-Chul. 2007. "A Study on the Types of Plagiarism and Appropriate Citation Practices of Writing Research Pap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3): 103-126.

- [2] Kim, Sungsoo. 2008. "A Study on the 'Academic Honesty' Policy in the U.S.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Problem of 'Plagiarism' in College Writing." *Research on Writing*, 6: 193-226.
- [3] Song, Young-Hee. 2013. *Collection Management in the Digital Era*.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4] Shim, Wonski, Byun, Jeayeon and Kim, Minjung. 2013. "Analysis of Wikipedia Citations in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47-264.
- [5] Lee, In-Young. 2011. "Analysis of the Condition of Use of Data at Academic Writing of College Student." *Literary Criticism*, 41: 279-320.
- [6] Lee, Ji-Yeon and Lee, Sang-Kon. 2008. "A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Misuse of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6(3): 103-121.
- [7] Rhee, Hey-Young and Nam, Tae-Woo. 2010. "A Study on Undergraduates' Citation Use and Plagiarism Awaren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175-198.
- [8] Rhee, Hey-Young. 2011. "A Study on Paper Writing Education i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369-395.
- [9] Rhee, Hey-Young. 2012. "The Present Condition on Education of Citation & Reference Writing i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3): 35-56.
- [10] Choi, Seon Kyung. 2009. "Analysis of Errors in Academic Writing of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Style of Citation." *Korean Education*, 81: 299-324.